



APGAR score/아프가 스코아<하>



김건상 박사

Apgar score는 신생아의 상태를 0에서 10까지의 수치로 표현하는 것으로 심박동수, 호흡수, 근육의 긴장도, 반사반응 그리고 피부색 등을 평가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APGAR는 Adaptability,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and Resolve를 의미하기 때문에 APGAR이고 이것을 American Pediatric Gross Assessment Record로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APGAR가 된다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라면 KPGAR이 되어야 하나? 성인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APACHE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의 약자라고 한다.

미국 사람에게나 아파치 인디언이나 아리조나주(the Apache state)가 중요하지 다른 나라 사람에게겐 아무 것도 아닌데 억지로 아파치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 너무 작위적인 것처럼 보인다. 짓궂은 사람들 중에는 산부인과의 약자인

OBGY를 더러 BOGY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약자 중에는 마음에 안드는 것도 많이 있다. 예를들면 병원에서 더러 쓰는 약자 중에 GOK는 God Only Knows의 약자인데 진단이 잘 붙지 않는다고 함부로 GOK라고 병록지에 써서는 곤란한 아주 경솔한 약자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미국 의사들 특히 좀 유식한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Ygiagam이 라는 것이 있다. 그리스 말 같은 어감을 주는 이 말은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이라는 훌륭한 문장의 약자인데 역시 함부로 쓰기는 곤란한 것 같다.

소아과 선생님이 주로 쓰고 계시는 Apgar Score의 Apgar는 소아과 의사가 아니고 마취과 의사이며 그의 논문이 실린 잡지도 소아과 잡지가 아닌 Anesth Analg. 32:260,1953이다.

하키야 방사선과의 원조인 Wilhelm Roentgen은 의사도 아닌 물리학자이었으며 근대 미생물학의 태두는 의사가 아닌 화학자 Pasteur이었으니까 방사선과 의사나 미생물학 전공하는 의사들은 이 분들 덕에 사는 것이니 늘 남의 덕에 사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의사를 가진 자라 하여 너무 폄박하면 의과대학 지망생이 줄 것이고, 결국은 머뭇 나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 손해를 볼 것이다. 시민단체도 언론도 또 정부도 의사들이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